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경쟁정책동향

본협회 조사부

미국

**미국 소화전공의 미국자회사,
 미국내의 가봉전극의 가격
 유지의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기소-벌금 2,900만 달러**

미국 법무부는 일본(2월 23일) 소화파이낸스사(소화전자회사의 자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소화·덴코·가봉(이하 「SDC」이라 함)이 가봉전극(인조흑연전극) 가격의 유지와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의 유지를 기도하고 광범한 국제적 카르텔을 체결했다하여 이 회사를 기소하였다.

SDC는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반트러스트 집행관련규정에 의거 벌금 2,900만 달러(약 37억엔)의 납부를 수락하였다. 이 기소는 법무부가 가봉전극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수사에서 실마리를 잡았다. SDC와 그 공모회사는 계속중인 수사에 협력할 것에 동의하였다.

SDC는 공모자와 함께 경쟁을

배제하였다고 하여 서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SDC는 미국 및 다른 지역에서 '93년부터 '97년 1월까지 가봉전극의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분할하였다.

가봉전극은 탄소주(柱)로써 스크랩으로부터 새로운 철을 정련할 때에 전로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재이다. 미국내의 총 매상고는 '96년에 5억 달러, 공모기간 중에 15억 달러였다.

SDC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의 회사로서, 미국내에서 가봉전극을 제조하고 미국 및 다른 지역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본사는 릿스빌(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다. 「오늘의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국제적 카르텔이 미국기업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 반트러스트국은 이러한 카르텔의 수사를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관계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엄격하게 소추한다.」고 크라인 반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하였다.

본 건의 SDC의 공모자에게 과한 벌금의 대상이 된 행위를 보면,

- (1) 극동, 유럽, 미국에서 미국내 및 기타지역에서의 가격·판매수량을 논의하는 회합 및 화합에 참가한 점
- (2) 이러한 회합을 통하여 가봉전극의 가격인상 및 유지에 합의하고 유지가격을 깎아 주지 않은데 합의한 점
- (3) 공모자와 판매량 할당에 합의한 점
- (4) 세계시장을 분할하고 미국을 포함 각 지역에서 타사가 따를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회사를 지정하는 일에 합의한 점
- (5) 참가회사의 가봉전극의 제조능력의 제한에 합의하고 참가자이외에 대한 기술제공의 제한을 합의한 점
- (6) 참가자의 코드네임의 사용을 포함하여 카르텔의 도피 방법을 상의한 점

(7) 합의내용에 대한 실시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판매정보 및 고객의 정보를 교환한 점

(8) 합의로 따를 가격을 공포하고 이를 할당한 점들이다.

이러한 공모내용을 통하여 고객은 중대한 가격상승을 체험하였다. 「이 사건은 가봉전극산업에 대한 초동수사에서 계속 확대하는 국제시장에서의 반트러스트국의 수사의 상징이 되었다.」

스프라도링크 반트러스트국장(형사 담당)은 「최근 이 업계와는 다른 국제적 산업분야에도 보다 많은 소추를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UCAR 인터내셔널사(커티컷주, 덴버) 및 SGL 가봉사(웨스바덴, 독일)가 세계적인 2대 가봉전극 제조업자이다. 또한 UCAR 인터내셔널사 및 SGL가봉사(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SGL 가봉 AG사의 미국 자회사)는 이미 '97년 6월 5일에 사무소에 대한 가택수색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다른 가봉전극의 제조업자인 카바이트/그라파이트 그룹(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은 회사가 사전의 소추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반트러스트국의 협력프로그램(Antitrust Division Corporate Leniency Program)을 받았

다고 발표하였다.

SDC는 서면법 위반으로 추궁받았으며 동 법에 따라 최고 1,000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과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벌금은 공모자가 얻은 이득의 2배 또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2배 중 어느 경우가 벌금의 법정최고액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양자중 고액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 '98. 2. 23, 미법무부 발표

UCAR사, 가격고정 사건에서 기록적 액수의 벌금 지불에 합의

미국 법무부가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의 가격을 인상한 전세계적 카르텔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반트러스트법 사건 역사상 최대금액인 1억 1,000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7일 이루어졌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미국의 주요 흑연 전극 제조업체인 UCAR International Inc.가 경쟁업체들과 공모하여 가격을 고정하고 전세계 시장을 분할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시인하고 기록적인 벌금 납부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과거 최고 벌금액은 '96년 Archer Daniels Midland사가 식품 및 사료 첨가제인 라이신과 구연산의 가격을 고정한 국

제 카르텔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부과받은 1억 달러이다.

최근 6개월 동안 국제 카르텔에 대한 단속으로 인하여 “십여 건의 기소와 거의 2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부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반트러스트국 형사집행담당인 Gary R. Spratling은 밝혔다.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UCAR사가 계속되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기타 카르텔 참여업체를 기소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커다란 촉진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부는 '92년 7월부터 '97년 7월까지 행하여졌던 당해 공모로 인해 제철업체들이 다수의 사업용 및 소비자용 철근제품 제조를 위해 고가이며 경쟁적이지 못한 가격을 지불하고 흑연 전극을 구입하여야 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의 흑연 전극의 매출액은 '96년에 5억 달러, 그리고 기소대상인 담합이 진행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17억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담합 참여업체들은 현재 미국 제철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부분 -미니밀 산업-을 대상으로 열의 근원인 흑연 전극을 제조한다. 이들 전극은 미니밀 용광로에서 연소되면서 고철의 용해

및 정련에 필요한 높은 열을 발생시킨다.

커넥티컷주 Danbury에 소재한 UCAR사는 국내외 소비를 위해 테네시주 Clarksville에서 전극을 제조한다. 동 회사는 '95년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분리되었으며 작년에는 1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UCAR사에 대한 벌금은 지난 2월 공모자였던 Showa Denko Carbon Inc. -일본 회사의 자회사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Ridgeville에 소재 -가 유죄를 시인하고 2,9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한 데 뒤인 것이다. 당시 이 벌금액은 반트러스트 사건 역사상 네 번째로 고액이었다.

또다른 담합 참여업체인 피츠버그의 Carbide /Graphite Group은 반트러스트국의 법인 처벌감면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면을 받았다. 기업들은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던 반트러스트 위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함으로써, 또는 검찰이 승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이전에 검찰에 협조하는 첫 번째 공모자가 될 경우 기소를 피할 수 있다.

Carbide /Graphite Group은 “매우 조기에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의 한 관리자는 밝혔다.

UCAR사 및 독일 Weis-

baden의 SGL Carbon AG는 세계 2대 흑연 전극 제조업체이다. 독일 SGL Carbon사의 자회사로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소재한 SGL Carbon Corp.는 과거 정부 관리들이 '97년 6월 동 회사의 사무실을 수색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UCAR사 및 다른 담합업체들이 암호명을 사용하면서 극동, 유럽 및 미국에서 회합하여 흑연 전극의 가격과 생산량을 고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할인을 폐지하며 경쟁업체 각각의 제품 판매량과 판매지역을 할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또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 신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흑연 전극 가격은 담합이 유지되던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이상으로 상당히 상승하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 '98. 4. 7, The New York Times

2개 영화관 체인, 기업결합시 맨하탄 지역 영화관 일부 매각에 합의

Loews Theaters Exhibition Group과 Cineplex Odeon사는 주 및 연방 당국과

의 협정의 일부로서 맨하탄 지역의 14개 영화관의 매각에 합의함으로써 기업결합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법무부와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이들 영화관 체인간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맨하탄 시장이 독점화되고 관람권 가격이 인상되며 초대형 흥행작품의 상영은 이들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여 왔었다.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결합된 영화관 체인은 Sony, Loews 및 Cineplex의 소유하에 있는 맨하탄 지역 영화관의 70%를 통제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뉴욕주 법무장관인 Dennis Vacco는 4월 16일 밝혔다. “이렇듯 증가된 시장력은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9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뉴욕시 관람객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들 영화관 체인이 화해에 응하지 않았다면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법적 조치를 취하여 주 및 연방 반트러스트법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였을 것이라고 뉴욕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인 David Corvette는 언급하였다.

뉴욕 내에서 매각될 14개 영화관은 Sony사의 34th Street Showplace, 그리고 Cineplex Odeon사의 맨하탄 지역 영화

관 중 하나를 제외한 전부이며, 이에에는 상업지구 외곽에 소재한 유명한 Ziegfeld Theater도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상영 스크린은 Upper East Side에서 Greenwich Village까지 36개가 된다.

맨하탄에 소재하고 있으며 Loews Theaters를 소유하고 있는 Sony Corporation of America와, 토론토에 소재하고 있는 Cineplex Odeon Group은 이들 영화관의 매각이 끝나고 나면 맨하탄 지역에서 9개 영화관과 55개 상영 스크린을 보유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46%로 낮아질 것이라고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밝히고 있다.

Loews Theaters와 Cineplex Odeon사는 맨하탄 지역에서 1, 2위의 영화관 체인데, 이 사건에 관련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구매자에게 이 지역의 14개 영화관을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영화관은 6개월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수탁인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수탁인이 자산매각을 완료하게 된다.

법무부와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관련 영화관들을 영화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만이 인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주가 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

이도록 영화관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Sony사와 Cineplex Odeon사는 또한 법무부와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실과의 합의에 따라 시카고의 11개 영화관도 매각할 것이다.

뉴욕주 정부와 연방정부는 Loews Theaters와 Cineplex Odeon사가 작년 9월 Loews Cineplex Entertainment Corp.라는 이름하에 합병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한 직후 이번 조사를 개시하였다.

Sony Retail Entertainment사의 회장이며 곧 Loews Cineplex Entertainment사의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Lawrence Ruis는 동 영화관 체인은 당해 기업결합 완성을 위한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Ruis는 매각대상인 영화관의 대다수는 1개 내지 2개의 상영 스크린을 보유한 것들로서 보다 수익성 높은 다중 스크린 영화관에 초점을 맞추는 신생 영화관 체인의 전략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관들은 시장성 있는 뉴욕 및 시카고 시장에서 자기 존재를 확립하는 데 관심이 있는 상영업체에게는 “귀중한 진입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Vacco 법무장관은 맨하탄 지역 영화관에 관한 자산매각 협정은 4월 16일 뉴욕주 법무장관실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제출한바 반트러스트 제소 해결을 위한 동의명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당해 화해안은 뉴욕주 연방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Loews Cineplex사는 맨하탄에 본사를 두고 약 425개 영화관에서 2,700개의 스크린을 운영하게 되며, 연 수입은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 신생 영화관 체인은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것이 될 것인데, 최대규모의 것은 Regal Cinemas, United Artists Theater Group 및 Act III Cinemas의 기업결합의 결과 탄생할 영화관 체인으로서 5,300개 이상의 상영 스크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98. 4. 17, The New York Times

FTC, 인텔사-디지털시간 일부 기업결합 계획 조건부 인가

미 연방 규제당국은 인텔사에 의한 Digital Equipment Corp.(이하 “디지털사”라 함)의 알파 컴퓨터칩 사업부문 취득계획을 조건부로 인가함으로써 인텔사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가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월 23일, 디지털사에 대하여 알파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제조할 수 있는 다른 제조업체를 물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컴퓨터 칩은 강력한 업무용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한다. 다른 제조업체에는 Advanced Micro Devices Inc. 및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 컴퓨터칩 제조업체, 그리고 IBM사와 같은 제조업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규제당국은 상기 사업부문 취득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지배권이 인텔사에 부여됨으로써 경쟁을 제약할 것임을 우려하였다. 인텔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미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85%에 장착되어 있다.

“동 위원회의 명령은 다른 주요 칩 제조업체들이 이제 알파 칩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알파 칩이 인텔사의 칩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는 성명에서 밝혔다.

인텔사는 '97년 10월 디지털사의 알파 컴퓨터 칩 제조 사업 부문을 취득한다고 발표하였었다. 15억 달러 규모의 당해 거래는 디지털사가 인텔사에 대하여 자사의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해결되었다.

이 거래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다른 문제는 컴팩사의 디지털사 취득 제안이다. 컴팩사의 대다수 컴퓨터는 인텔사의 칩을 사용하고 있으며, 컴팩사가 얼마나 강력히 알파 칩을 지원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 '98. 4. 24, The New York Times

EU

유럽위원회, Assurances Général de France사의 Royal Nederland Verzekeringsgroep 취득 인가

유럽위원회는 프랑스 보험회사인 “Assurances Général de France”(이하 “AGF사”라 함)가 네덜란드 보험회사인 “Royal Nederland Verzekeringsgroep N. V.”(이하 “RN사”라 함)를 인수하는 기업집중을 인가하였다. 이 기업집중은 생명보험회사와 비생명보험회사간의 결합에 관련된 것이다. 당사자들은 네덜란드 내의 생명보험사업 및 비생명보험사업 일부에서 활동이 중첩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시장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또한 네덜란드 외의 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덜란드 내에서 발견되는 중첩되는 활동은 생명보험, 그리고 예를 들어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해상운송보험, 화재보험 및 사고보험과 같은 비생명보험 일부이다. 그러나 어떠한 시장 확정을 하더라도 이들의 결합된 점유율은 15% 미만이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보험제품 시장에서는 AGF사의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점유율의 증가는 미미하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AGF사는 프랑스 보험회사로서 유럽경제지역(EEA) 및 전세계의 생명 및 비생명보험, 그리고 재보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RN사는 네덜란드 회사로서 생명 및 비생명 보험산업에서 활동하는 여러 보험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RN사는 지주회사인 “European Partners for Insurance Co-operation S. A.”(이하 “EPIC사”라 함)를 통해 독일의 Aachener und Münchener Beteiligungsgesellschaft(이하 “AMB사”라 함)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AGF사에 의한 EPIC사의 전체 주식 취득은 이탈리아 보험회사인 “Assicurazioni Generali”사가 AMB사의 단독지배권을

획득한 이후 시행될 것이다.

Allianz사, AGF사 및 Generali사간의 합의에 따르면 이번 시장집중은 Allianz사가 AGF사에 대하여 개시한 공개매수에 대한 동 위원회의 인가여부가 결정되어야만 시행되는데, 이 공개매수는 현재 동 위원회가 검토중이다.

■ '98. 4. 24, 유럽위원회 보도

일본

공취위, 로손사의 무료납품 강제 관련 현장조사

대형 편의점인 로손(Lawson)사(본사 오사카부 스이타(吹田)시)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무료로 납품하도록 요청한 다든지 고액의 협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6일 독금법 위반(우월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오사카 본사 및 동경도 미나토(港)구에 있는 본사 등 약 14개소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취위 및 관계자에 따르면 로손사는 금년 1월말, 치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시 내에서 일용품을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체 등을 모아「여러분의 상품을 전 점포에 골고루 유통시켜 매출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 다음 번 이후의 매출로 이어지니, 이번에는 무료로 상품을 납품하면 좋겠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후에「가·불가」라고만 인쇄되었으며「첫 번째 회합에서는 여러분 모두 “가”를 택하셨습니다」라고 서두에 표기된 용지를 배포한 후에, 어느 한 쪽에 동그라미를 치고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그 이유도 쓰도록 지시하였다.

「“불가”라면 왜인가」라는 질문에서는「곧바로 우리와의 거래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에게 판단을 맡깁니다」라고 하여 거래정지를 암시하였다. 로손사는 그 후 유통업자 등을 통하여 납입가격을 무료가 아니라 상품 1개당 1원으로 한다는 연락을 하여 왔다.

동경 내의 한 일용품업자는「상품의 대부분을 로손사에 납품하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로서는 대단한 압력이다. 거래를 정지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가”에 동그라미를 쳤지만 이는 당치않다」라고 하였다.

또한 납품업자에 대하여, 자사의 결산대책으로서 결산기가 가까워져 오면 다른 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거래액의 수%에 해당하는「협찬금」을 내도록 요구하였다는 혐의도 있다.

업계관계자 중 한 명은「결산기에 협찬금을 요구하는 거래관

행은 이전에는 자주 보였으나, 로손사와 같은 대규모 유통기업에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하면 문제는 크다」고 하였다. 다른 대형 편의점 중에서도 도매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는「빙산의 일각」이라는 견해도 있다.

로손사는「다이에」의 자회사로서, 편의점업계에서는 매출액 기준 2위이며 45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동 회사는 다이에 그룹으로부터의 2조 수천억엔의 차입금 등의 삭감을 위해, 2000년 가을을 목표로 주식 공개를 예정하고 있다.

로손사는「현장조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논평할 수 없다」고 하였다.

■ '98. 4. 16, 산케이신문
& '98. 4. 16, 요미우리신문
& '98. 4. 16, 17, 아사히신문

공취위, 치치부오노다(秩父小野田) - 일본시멘트사간 기업결합 인가

공정취인위원회는 4월 23일, 금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시멘트업계 최대기업인 치치부오노다사와 3위인 일본시멘트사간의 기업결합 계획에 대하여, 시멘트의 비축·출하 거점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점유율 인하를 도모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인 후 이를 인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공취위는 미츠비시 마테리아루(Mitsubishi Material)사와 우베코산(宇部興産)사의 공동 출자에 의한 시멘트판매회사 설립에 대하여서도 조건부로 이를 승인하였다.

치치부오노다사와 일본시멘트사의 기업결합의 결과 이들의 일본 내 점유율은 약 40%로 높아지지만, 공취위는 국제경쟁의 격화에 대응하여 대형 기업결합의 인가에 유연한 대응을 보인 것이다. 작년 봄의 구 미츠이(三井) 석유화학공업과 구 미츠이 토오아츠(三井東壓) 화학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농약 등의 원료가 되는 페놀(석탄산)의 일본 내 점유율이 기업결합 후 57.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경쟁상대가 있다」는 이유로 조건 없이 승인한 경우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시멘트의 수입압력이 현재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무조건적인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98. 4. 23, 요미우리신문

기타

영국 공정거래청, 요금 인상을 위한 버스회사들의 담합 적발

영국 공정거래청(OFT)은

4월 28일, 잉글랜드 북서부에 소재한 10개 버스회사들이 경쟁을 감소시키고 요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비밀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Merseyside Transport(MTL)사와 Merseyside 및 Greater Manchester 지역의 기타 9개 버스사업자들은 운행노선 공유 및 요금 고정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한적 관행 범위에 회부되었다.

공정거래청장인 John Bridgeman은 “이들 회사들간의 비밀 협정은 요금 인상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Merseyside 및 Greater Manchester 지역 운행노선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킬 의도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에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MTL사 외에 당해 카르텔에 연루된 것으로 주장되는 회사들은 Greater Manchester Buses North사, Greater Manchester Buses South사, South Lancashire Transport사, David Tanner Travel사, Nip-On Transport Service사, North Western Road Car Company사, C&M Travel사, PMT사 및 Halton Borough Transport사이다.

MTL사 및 2개의 Greater Manchester 버스회사들은 상

호간에 각자의 영역에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MTL사는 또한 South Lancashire Transport사, David Tanner사 및 Nip-On사가 다른 노선의 운영을 중지하는 대가로 St Helens 지역에서의 노선 운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다른 협정에서 MTL사는 North Western사, C&M사, South Lancashire Transport사 및 Halton Borough사와의 합의에서 리버풀을 순회하는 1마일 노선 및 2마일 노선의 요금,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이외의 어린이용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MTL사는 또한 어린이용 요금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협정을 PMT사와 체결하였다.

OFT는 유럽연합 경쟁관련 입법이 부여하는 강력한 권한이 있었다면 조사를 더 빨리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벌금 부과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현재 OFT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사들이 위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얻어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만일 회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경우 이들은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관련 거래 제한이 공익에 반한다고 결정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카르텔협정의 재개를 금할 수도 있다.

■ '98. 4. 29, Financial Times